북미주 이화동창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HA WUAANA

www.ewhaia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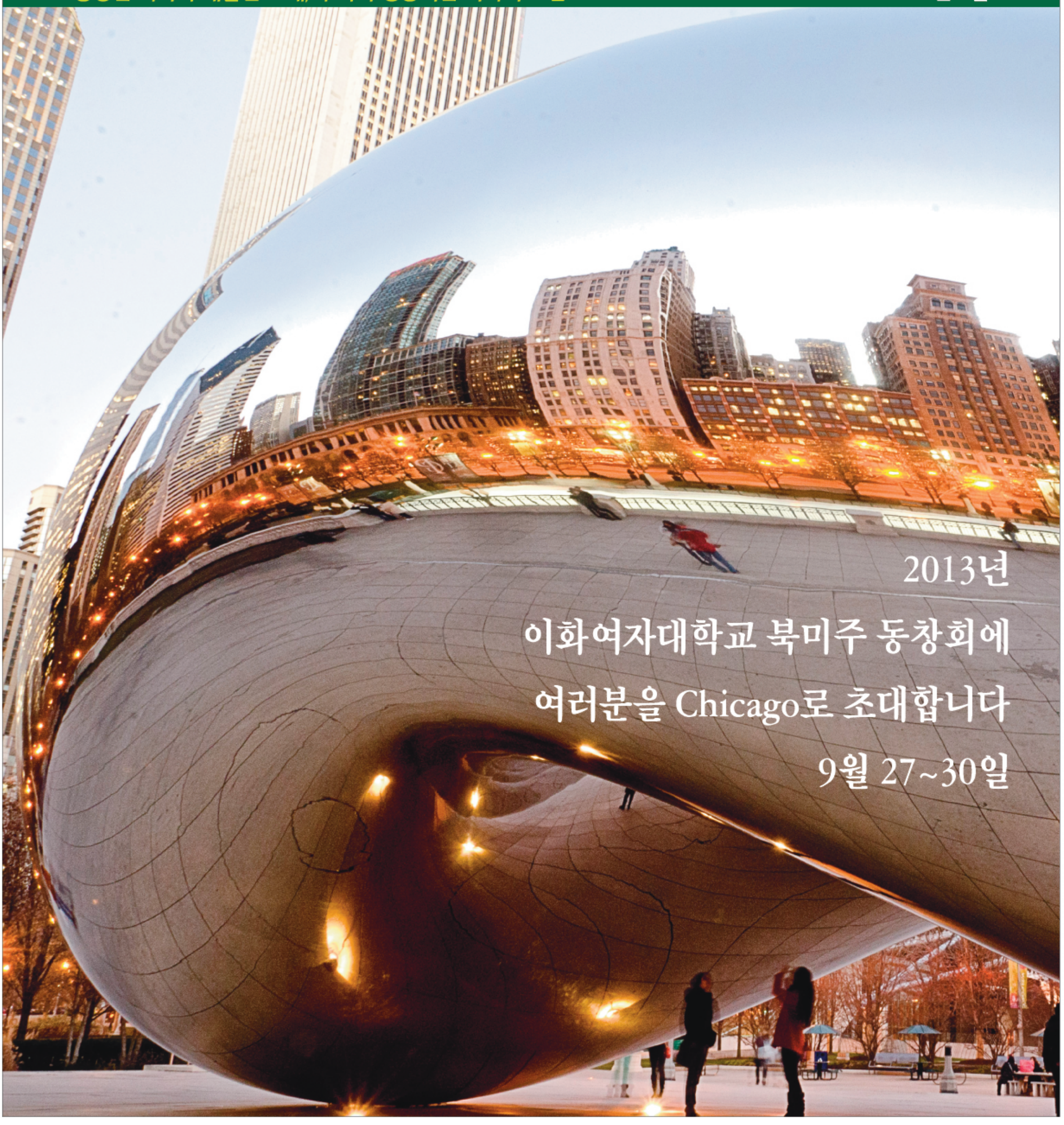
E-mail: EWUAANA@gmail.com

Phone: (847) 521-9491

발행인: 송복진 편집인: 임성숙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2013년 6월



교훈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을 진(眞), 선(善), 미(美) 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온 진, 선, 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화의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金尙榕) 선생이 간결하고 명확한 '진, 선, 미'를 제안하였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정되었다.

眞 진

진은 지(知), 즉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화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대학이 지식의 탐구를 게을리하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더구나 지혜의 원천이며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식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문 연구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善 선

선은 덕(德)이다. 지식은 인간에게 선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지고지순의 아름다운 덕성,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국만리 타향의 벽안의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며, 공동체 사회와 인류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이다. 이화인들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갈고 닦으며, 나아가서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美 미

미는 조화(調和)를 의미한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예술적 정서이다.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와 독특한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화가 추구하는 미(美)의 참된 개념이다. 이화는 전방향의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갈 창조적인 지식인을 양성할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차례 | Table of Contents

- 이사장 인사말 – 장명주 4
- 회장 인사말 – 송복진 5
- 동창 컬럼 – 박혜경 6
- 총회 보고 7
- 장학사업 안내 – 조효은 8
- 장학생 편지 9
- 동창 탐방 – 한영숙 10
- 동창 탐방 – 최선열 11
- 의대 소식 – 안정옥 12
- 수상 소감 – 배계자 13
- 총회 사진 14
- 수필 – 하얀 산과 빙하의 추억 / 이지연 18
- 수필 – 동그라미 / 김화진 20
- 수필 – 우리집 뒷마당 / 조효은 21
- 수필 – 별난 하루 / 호진희 22
- 수필 – 나의 미국 유학의 꿈 / 현 주 (현경애) 23
- 방문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 최경숙 24
- 지역 활동소식 – Los Angeles 25
- 지역 활동소식 – Central Florida / Philadelphia 26
- 지역 활동소식 – Chicago / Las Vegas 27
- 지역 활동소식 – Washington D.C. 28
- 시 – 당신을 위하여 / 김택수 28
- 동창활동 – 오민자 / 신정순 29
- 동창활동 – 황진수 / 김성혜 / 김정옥 30
- 임원명단 – 2013-staff list 31
- 프로그램 / 총회 이사회 Agenda 32
- 총회 신청서안내 및 총회 신청서 33
- 광고 34
- Art Exhibit 안내 40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올해도 우리 북미주 이화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창회 회원 여러분들께 문안인사와 더불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한 Alaska Cruise 여행이 기대 이상의 참석으로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지요. 긴 겨울이 가고 새해를 상징하는 봄이 오면 동시에 우리의 또 한번의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고 기다려지는지….

북미주 이화 동창회가 벌써 1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진정한 동창회'의 의미를 심어주신 선배님들의 현명함과 열정에 마음 깊이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북미주 이화 동창회의 mission이 첫째 선후배간의 사랑과 정의 교류이며, 둘째는 우리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준 모교에 우리 북미주 이화 동창들이 힘을 합쳐 21세기에 걸맞은 여성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다시 새겨봅니다.

저희는 아직도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 벽이 너무 높아서 좌절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죽이고 남을 배려하라'라는 문구를 되새기며 진실된 삶의 중요성을 재인식합니다. 그럴 때 더욱 더 용기를 얻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함께 할 날이 꼭 올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북미주 이화 동창회는 혼자와도 재미가 있는 곳 그래서 북미주 여러 지역에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9월 말에 있을 Chicago 모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모임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으시는 회장님과 준비위원장 그리고 여러 임원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가정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장 장 명 주 (의대, '77)

이화동창 여러분을 -**호수와 바람과 건축의 도시**- 시카고로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시카고에서 이화의 선후배님들이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북미주 각 처에서 오시는 여러 동창들을 만나 뵐 생각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올 가을9월 27일(금)~30일(월), 3박4일동안 일상으로부터 훌쩍 떠나 이화동산에서 함께 꿈을 키워왔던 벗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함께 스스럼없이 깔깔대고 웃으며 회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례총회를 통해 감사와 웃음과 감탄을 실습하는 4일장에서 우리 이화인은 젊음을 마음껏 발랄하게 펼칠 수 있으며 '행복은 감사의 크기만큼 찾아온다. 행복은 웃음의 길이만큼 자라난다. 행복은 감탄의 횟수만큼 번져간다'를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매일 정신없이 반복되는 쳇바퀴 생활에서 메말라있던 여러분의 지성, 감성, 예술성을 촉촉히 적시며 만족시켜 드리는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숲속에서의 체조와 걷기로 시작하여 '한국 현대시의 향유', 'Pain: Living Life!' 그리고 'Personal is Political'이란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는 세 분야의 흥미로운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 문화회관에서 열리게 될 'Ewha Art Exhibit 2013'도 또 하나의 볼거리라 생각합니다.

'시카고 강'따라 흐르는 재즈선율을 즐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Architecture Boat Tour, 개성이 넘치는 낭만의 시내 관광, Millennium Park, Michigan Ave. 그리고 Navy Pier를 돌아보며 미국 제 3의 도시 시카고가 현대와 과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곳임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Frank Lloyd Wright와 대문호Hemingway 생가를 관광하는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으리라 믿습니다.

친구 동창들은 물론 부부와 동반하는 멋진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9월에 시카고에서 반갑게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회장 송 복 진, BJ Kim (영문, '73)

십여년전 열심히 애들 키우며 직장 생활할 때 배우며 연습해도 끝도 없이 어려운 영어가 너무 힘들었고, 한국에 계신 친정엄마가 많이 그리웠을 때, 나는 작은 쉼터 같은 동창회를 만났다. 가족같이 서로를 염려하며 작은 사랑을 서로서로 나누고 지역 사회에도 의미있는 봉사 를 하며 매달 모이는 라스베가스 동창회가 나에게는 그저 반가웠다. 한달에 한번의 모임이 즐거워서 은근히 기다려졌고 서로를 예쁘고 젊어 보인다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동문들이 보고 싶어졌다. 칠순이 넘는 동문이 "혜경씨" 라고 불러주는 신선함도 좋았고, 여동생이 없는 나에게 언니 혹은 선배님이라 불러주는 예쁜 후배동문들이 참 고마웠다.

그러나 몇년간 조용하고 즐거운 예쁜 쉼터였던 지회모임이 통합된 북미주 총동창회 개최지가 되면서 연례총회 행사준비로 할일도 많아 지고 바빠졌다. 임원진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자 마음마저 무거워지며 힘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가 된 총동창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진·선·미의 이화향기를 북미주에 펼쳐 보기도 전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분열 되는 과정으로 가버렸다. 이제 몇년이 지나 그때를 돌아보며 나는 "동창회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동창회는?" 스스로 조용히 생각해 본다. 특별히 고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타국에서의 동창회란? ...

한국 사람이 그립고 특별히 '이화'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우리'가 그리워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갔던 동창회에서 더욱 더 힘을 얻고, 나이들어 적적한 마음을 서로 어루만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이 되는 많은 지역동창회가 있음에 이화동창회가 활발히 그명목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멀리 살고 있던 그리운 동창을 일년에 한번 만나 볼 수 있는 총동창회도 멋진 모임이지 않은가! 미국이라는 특성상 이 큰 나라에서 다른 주에 사는 동창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총동창회는 그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고 매년 다른지역에서 개최하여 보고싶던 동문들과 한국어로 마음껏 웃으며 즐거운 여행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 있는 동창들의 멋진 강의도 들으며 모처럼 대학생활을 다시 느껴 볼 수 있는 멋진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다.

각각 자신이 속한 총동창회가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다 아니다를 주장 하며 서로를 비판하는 오만함은 진정 누구를 위함인가? 이화를 나온 동창들이 모여 이화대학에서의 꿈많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친목하는 가운데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고마워하고 모교를 돕고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모임을 갖는다면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든 지 진정한 동창회 모임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딸이 없고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살아오며 한국의 이화와는 인연이 끊긴 줄 알았는데 이처럼 멀리 타향에서 동문들과 서로 사랑과 위로를 나누며 바쁜 삶 속에 그저 쉴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모임이 바로 이화동창회였다. 북미주에 산재해 있는 만여명 의 동창들이 힘을 모아 친목을 도모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에도 뜻있는 봉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21세기 여성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모교를 도울 수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화여대 동창회를 바라는 것은 나만의 욕심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들은 이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화]라는 같은 창을 바라보는 특별한 인연을 맺은 자매들이기에 [이화동창]이라 불리움에 감사 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이를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기를 다짐해 본다.

박혜경 (화학, '82)

알라스카 총회를 마치며...

2012년도 동창회 모임은 특색있게 cruise 선상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과거와는 달리 첫 cruise 여행을 한다는 기분에 모두 흥분된 마음으로 2월에 준비위원 모임을 했습니다. 이런 동창회 모임은 처음이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앞섰었지요. 먼저 여행 장소, 날짜, 배 회사 그리고 7박8일동안 우리의 모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좋은 여행사 선정 등, 결정해야 될 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Cruise 여행은 예약을 미리 요구해서 참석자 인원수에 맞추어 방을 예약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더우기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을 신청해서 반갑고 고마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되었지만, 여러 준비위원 임원들의 노련한 경험과 수고 덕분에 위치 좋은 방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Seattle 공항에서 만나 선착장으로 가는 버스에서 동창회가 준비한 김밥을 나누며 이런 자상한 배려와 준비는 참가한 동문 가족들에게 훈훈함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7월8일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창들이 무사히 선상에 올라 반가운 만남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흥분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상 첫 날 저녁 식사는 넓은 바다 경치가 최고인 restaurant 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용기 내어 혼자 오신 동창들도 오랜지기 친구를 만난 것처럼 허물없이 어울렸던 따뜻한 첫 날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7월 9일에 Inside Passage 를 항해하는 동안 이사회와 총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Cruise 안에서 행사를 하려니 장소의 제한이 있어 다소 불편은 했으나 늘 그래왔듯이 선후배님들의 이해심과 양해아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사업보고, 사업계획, 예산통과, 동창회의 현재 상황 그리고 참석한 동창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7월10일부터 매일 Day Trip으로 한때 gold rush 로 생긴 도시 Juneau, 11일에는 금광에 몰려온 광부들과 물자를 운송했던 그 당시 중요한 항구의 역활을 했던 Skagway, 12일에는 늘 듣고 또 들었던 그 유명한 Glacier Bay 국립공원에 도착하여 만년설과 빙하로 깔려 있고 흰눈이 덮힌 산봉오리를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또 예고없이 순간적으로 빙하가 분해되고 떨어지는 장면에 모두들 감탄을 했지요. 13일에는 항구도시 Ketchikan 의 원주민 마을과 토템 소장품을 관람하고 14일에는 매력적인 항구도시 Victoria에 도착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Butchard Gardens 을 방문했습니다.

수만가지의 꽃송이들로 장식된 정원은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절경이었지요. 창조력, 섬세함 그리고 특이한 정원 디자인에 감탄하며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아쉬움에 (아마도 눈으로 본 모든 것들이 뇌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거 같아요.) 여기 저기서 사진에 그 모습을 담으려고 포즈 잡는 동창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꽃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와같이 바쁜 여행 사이에도 '知'에 대한 추구로 우리는 세 분 동창의 부군을 강사로 모시고 workshop 을 가졌습니다. 흥미롭게 '귀의 건강과 질병에 대하여' 강의하셔서 언제나 인기 많으신 임종재박사님 (한영숙동문 부군), 최첨단 IT전문가로서 'From Eros (information Society) to Storytelling (Dream Society)'라는 주제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경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이병관 박사님 (이영희동문 부군), 멋진 음악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미국 국립공원'을 소개해 주신 우리 동창회 '전속 사진사'이신 김택수 박사님 (이희련동문 부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지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7박 8일동안 선내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며 한식이 그리워서 어쩌나 했는데, 마침 삼호관광에서 마련한 김치와 함께 먹었던 저녁 식사, 정성스레 준비해 온 라면 하나씩 받았을 때 다시 한 번 감격을 했지요. 또한 식사 때마다 이화동창을 특별히 배려해 한국 노래를 연주해 준 밴드 멤버들께 고마운 마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선배님들의 정력이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같이 질서정연하게 누구하나 뒤떨어짐없이, 무사히 계획된 일정에 다 참석하셨습니다. 또 우리 동창회 모임에서 뺄 수 없는 'Talent Show'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끼죽끼죽 넘나 보던 다른 대학교 동창들의 모습… 덕분에 이화여대 북미주 동창회는 너무 재미있다는 소문이 났지요. 'Talent Show'가 있었던 그날 밤에 CD player가 잘 작동되지 않았고, 장소도 좁아서 조금 불편했고 조명 장치도 잘 되어있지 않아 당황했지만, 우리 동창들은 이를 재치있게 해결하고 함께 웃고, 신나게 노래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요.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곤 합니다. 특히 이 날은 홍명희 동창의 생일이라서 부군께서 wine으로 우리를 멋지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Alaska Cruise 동창회 모임에서 가장 뜻 깊은 것 중의 하나는 북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동창들 중 저희 동창회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처음 참석해 조금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 했는데 주저함없이 모든 행사에 적극 동참하시고 늦은 밤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처음 만난 선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눈 것이지요. 역시 '동창은 하나' 라는 의미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의미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동창회를 마친 후에 후원금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새 이화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왜 우리가 알라스카를 동창회 모임의 장소로 선택을 했을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라스카가 미국에서 천연자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듯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원은 북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동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group cruise 계획이라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Alaska Cruise 여행을 성공리에 마쳤듯이 우리 동창 한분 한분이 모두 한 마음이 된다면 할 수 없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북미주 동창회의 번영과 동시 이화여자대학교의 발전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뜻 깊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laska Cruise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임원진과 참석하신 모든 동창들과 부군들, 그리고 workshop 을 통해 소중한 지식을 얻게 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효은 (교육, '71)

2012 장학사업 활동 보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는 사업의 일환으로 장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고,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재능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뜻깊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창회는 북미주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능력있는 우리의 후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화의 이름으로 이화 동문 유학생을 포함해 북미주 동창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장학생 신청서를 받아 신청한 모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수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 6 명에게 총 만불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의 장학금 수혜자가 언젠가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재를 돕는 뜻 깊은 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금이 모아져 크게, 넓게 쓰일 것입니다. 이 일에 많은 동창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부 위원장 조효은 올림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ww.ewhaian.org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 장학사업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에서는 북미주에 유학 오는 이화 대학생, 대학원 학생과 북미주 동창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서는 www.ewhain.org에서 download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 personal essay 그리고 추천인이 직접 보내야 하는 추천서(2) 입니다.

각 전공 분야에서 우수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중 2013년에도 아래와 같이 장학금 총 $10,000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3,000 1명 $2,000 2명 $1,000 3명

신청서: www.ewhaian.org

신청마감일: 2013년 7월 30일

보낼곳: Hyoeun Cho Shorack / 4926 Regla Court, San Diego, CA 92122

연락처: (858) 452-9825, (858) 525-5211 / hshorack@san.rr.com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My deepest thanks to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for the scholarship award. From aiding my textbook costs to helping me come home for holidays, this scholarship has financially supported me in both the "big" needs and the everyday, little things as a college student. I have always had the highest regard for Ewha because it is in fact the home of my inspiration, my strength, and my hero–my mother Hyesung Lee (Ewha '86). As I complete my studies and pursue my dreams, I will remember this gesture and financial support from each of you in the Association whom I imagine to be inspirations, strengths, and heroes in your own families. I sincerely thank you, and I eagerly look forward to seeing the Association continue to support students like me.

Edward J. Lee (Harvard College Class of 2015)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Thank you very much for awarding me the 2012 EWUAANA Scholarship. It is because of your generosity that I am able to decrease the number of hours that I work during the week and better focus on my studies. I was presented with many learning opportunities this year. I was given a research assistant position to work with a professor on various managerial accounting issues. In addition, I had a chance to coach 25 first-year international students, facilitating their integration into both the university and the Canadian society. In a few months, I will begin my second term of internship at a prestigious accounting firm where I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practical skills needed to become a successful accounting professional.

On behalf of all students working to overcome financial difficulties to achieve their dreams, I would like to thank you again for your generosity. I will always try my best to demonstrate the excellence and leadership that the Ewha Womans University is synonymous with.

Sincerely,
Serin Kim (University of Ottawa'14)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Thank you notes

이화 장학위원회분들께,

저는 2012년도 장학생으로 선택된 유헤림입니다. 제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정성으로 만들어 졌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북미주 이화동창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Sincerely,
유 헤 림 Jennifer Yu (Mount St. Mary's College)

좋은 향기의 사람 - 한영숙 동창 (영문, '60)

세상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또 좋은 향기의 사람이 있어 우리의 삶은 퍽 행복해지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마음씨가 있다. 남을 도우며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 허물을 감싸주고 남의 미흡한 점을 고운 눈길로 봐주는 사람, 인연을 깨뜨리지 않고 삶을 진실하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은한 미소를 짓게한다. 인생의 노년기에서 동창회를 통해 이런 분들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있음은 진정 축복받은 일이 아닐런지...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가 선정한 자랑스런 아름다운 이화인 한영숙 동창을 찾아본다.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의 파노래믹 산길을 꼬불꼬불 2마일쯤 올라가면 동양식의 아담한 집이 한영숙 동창과 부군 임종재 박사(이비인후과)의 보금자리 --- 아름다운 전망에 반해서 18년전 워싱톤 D.C.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 올 때 이 집을 택했다는데 대문을 들어서면 동양식의 예쁜 아기자기한 나무들이며 현관으로 이어지는 작은 다리 밑으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잘 어울려져 찾아 오는 이들에게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흠뻑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소박한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실내장식이 편안함을 주는 반면 응접실의 한부분을 크게 차지한 까만 그랜드 피아노와 첼로 그리고 뮤직 스탠드가 음악을 각별히 사랑하는 집주인으로 보는 이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누가 보아도 그 크기와 시설이 표준급 이상인 선배의 부엌은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안주인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초대, 즐겁게 했을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한영숙 동창은 1960년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 잠시 서울에 있는 메디칼 센터에서 근무하다 도미, Peabody Library School, Peabody college for Teachers에서 도서관학으로 석사 학위을 취득하고 Ohio Worthington 공립도서관에서 25년간 근무해 왔다. Ohio에서 지인의 소개로 다시 만난 임 박사와 결혼했고, 열심히 일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 온 그곳이 그녀에게는 늘 고향같이 생각된다고. 임박사님의 새 일자리(N.I.H.)로 정든Ohio을 떠나 Washington, D.C.로 옮겨오면서 한 동창은 북미주 이화여고 동창회 지역회장으로의 봉사를 시작해 2004년 Los Angeles에서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를 창립,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때 시작한 Mary Scranton 장학사업은 계속 모금되어 30만불 가까운 성금이 모였다. 이 기금은 한국 여성교육에 이바지한 Mary Scranton 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나아가 발전 도상에 있는 세계 여러 국가의 여성 지도자를 양육하는 장학사업으로 사용될 것이며, 이화의 명성과 그 위상을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한 선배는 2012년 다시 Los Angeles의 Disney Concert Hall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10만불의 성금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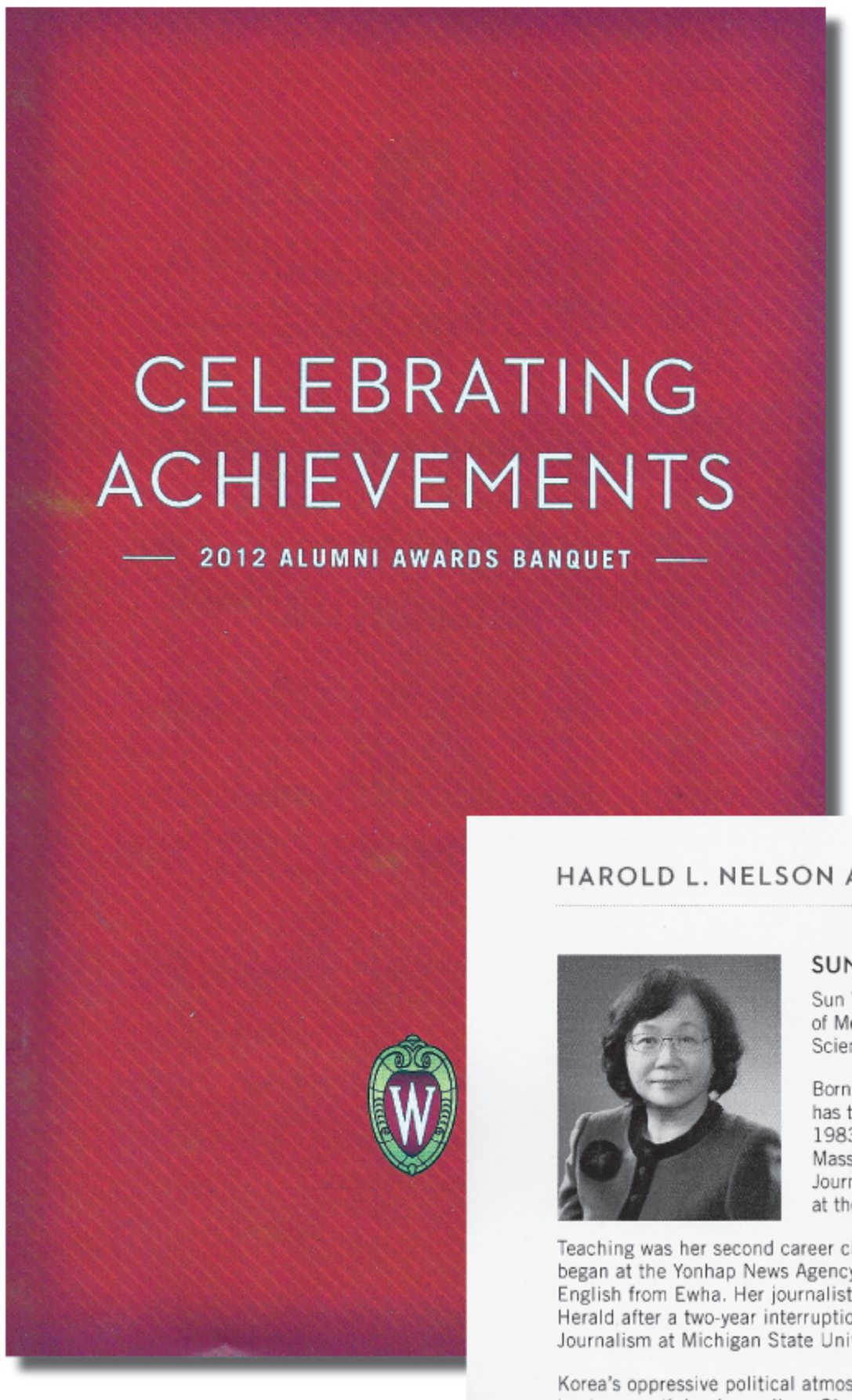
한 동창의 특출한 기금모금 능력은 이화동창회 뿐아니라 그녀가 자원봉사한 Wellness Community Center에서도 모금위원장으로, 또 부군 임 박사께서 근무하는 House Ear Institute의 모금 단체에서도 이사로 크게 기여해왔다. 그리고 한 동창은 2007년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 회장과 이사장(2011, 2012)으로 수고하며 동창회를 위한 지도력과 물심양면으로 보여준 아낌없는 그녀의 봉사심은 많은 이화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희수의 나이에도 한 동창은 일주일에 몇번씩 친구들과 복식으로 정구를 즐기며 때론 혼자서 한시간 이상 drill session에 몰두하며 잡념을 버리기도 한단다. 아직도 매년 겨울이면 부군과 스키를 즐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되고, 과거 유방암을 앓았다는 사실 조차 인정하기 어려웠다. 한 선배는 늦게 본 두살자리 손자 Thomas를 보러 일년에 몇번씩 동부 Connecticut 까지 장시간의 비행기 여행을 하며 일하는 아들 내외를 끔찍이 생각하는 자상한 어머니이며 삼남매의 장녀로 늘 동생들 챙기는 마음도 대단하다.

이화여고 시절 첼로에 푹 빠져 한때는 음대를 가려고도 생각했던 그녀 – 본인의 말대 로 "frustrated musician"으로 가끔 좋아하는 Bach의 Arioso곡을 켜며 음악인의 경지에 잠기기도 하는 선배는 정말 멋진 여성이란 생각이 든다.

"음식끝에 정 나지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 정담을 나누며 맛갈스레 만든 음식을 나누는 일이 본인의 소박한 꿈이라 말하는 선배에게서 늘 정갈가는 손맛으로 사람들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안주인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오는 새해에는 경치 좋은 한 선배 댁 명당 자리에서 Rose Bowl Parade를 내려다보며 정성스레 차려주는 정갈한 음식에 아름다운 첼로연주를 듣게 될 것을 상상해 보니 그녀의 진한 사랑의 향기가 다아오는 듯 하여 살며시 미소짓게 된다.

최선열 교수 (영문, '70) Harold L. Nelson 상 수상



Harold L. Nelson 상은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에서 공부한 졸업생 중에서 학계에 공헌한 사람들을 뽑아서 주는 명예로운 상 입니다. 역대 수상자들은 Journalism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동문 최선열 교수(영문, '70)님이 이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자 Evaluation 을 하기 위해 많은 조사를 했고 이화여대 졸업생들에게서도 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문열 교수님은 모교에서 2번이나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고, 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셨다. 특별히 이대신문, ID등 전산화 하는 것을 모두 다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 65세로 은퇴하셨지만 연구도 많이 하셨고 좋은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공헌하신 자랑스러운 동문 교수님이시다.

최선열 교수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University of Michigan, Lansing 에서 Journalism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에서 82년에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최선열 교수는 8남매의 7번째로 최씨 가문의 가르침인 Hard work, Excellence, Honesty 를 실행한 사람이라고 언니 DR.최선옥님은 말한다.

최 선 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안녕하세요?
지난 2011년 11월 San Diego, CA에서 제3차 미주의대 동창회 모임에서 김명미('67)동창이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의대동창 400여명의 주소록을 완성했습니다. 회장님의 많은 수고 덕분에 의대동창들의 친목과 교재를 위한 network system 이 점점 체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25일에는 LA지역에 살고 있는 의대동창을 중심으로 서현숙 의료원장님을 모시고 LA 지역 의대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서 의료원장님은 마곡 이화여대 제2병원의 1200병상 의료원 건립에 대한 취지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고,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화동창들의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화여대의료원은 전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여자대학병원이며 "이제 여성암은 물론 여성의 건강은 이대의료원에서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외동포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이화동창의 건강은 의료원에서 최고의 진료진들과 함께 편안하게 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새 병원 건립에 동참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지회연합회 LA 지회 이사장을 포함해 임원들과 북미주 동창회 이사장 및 여러 임원들이 한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내며 의료원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동의하게 된 의미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화의 한가족으로 두 단체의 화합의 가능성을 소망해 봅니다.

안정옥 (의대, '73)

그동안 5-6년에 걸쳐 남가주 지역에 살고 있는 의대동창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의과대학 재학생들, 전공의들의 미국 단기수련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내과 전공의를 마친 김경진('07)동창이 여러 동창들의 도움으로 3주동안 체류하며 외래 수련을 잘 마치고 본교로 돌아갔습니다. 새로 만든 의대 network system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을 지원하는데 많은 동창들이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서현숙 의료원장님께 Los Angeles 지역 미국의대와 이화의대와의 공식적인 연수 협약 체재를 확립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대 연례모임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Chicago에서 열릴 북미주 동창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총회와 더불어 모교 제2부속 병원 건립 및 후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며 해외에 살고 있는 이화동창들이 이화의료원에서 최고의 '종합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창우대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화여대 설립의 이념인 '진, 선, 미'의 향기를 날리며 환자를 치료하며 차별화된 진료로 소문나는 이대의료원이 되며, 이화여자대학교의 위상이 의료원의 발전으로 격상될 것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북미주의과대학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본교 의과대학과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website:www.eahwmd.net 또는 http://ewhamd.net/cafe/nam/ 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화의 한 가족으로서 자랑스러운 우리 의대동창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연락처: 회장 김명미 (714) 287-9101, 총무 안정옥 (714) 328-7731

수상 소감

박에스트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기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이 평범한 의사에게 이런 놀라운 상이 주어진 것에 대해 제일 먼저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수십번 외쳤습니다. 무릎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의사로 길러주신 이화여대 의대 교수님들과 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상은 저의 45년 의사생활의 highlight입니다. 박에스더 선생님은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서 이화학당을 거쳐 1900년도에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여자 우등생으로 졸업하시고 귀국하여 보구여관 (오늘날의 이화여대 병원)에서 일하셨다. 귀국 후 10개월간 진료한 환자가 3000여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보다 늘 환자들의 병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였지만, 결국 1910년 4월 13일 자신은 폐결핵으로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세살부터 소아마비에 결려 일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된 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유한 집안과 부모님의 배려로 원만한 삶을 살다가 중학교 입학 때 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953년 전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에 학교를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어려웠던 한국 농촌 농민들을 위해 살겠다고 고려 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했으나 그곳은 장애자인 저에겐 역부족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가난한 환자들, 소외된 자, 장애인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겠다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대 의과대학 졸업 후 부속 병원에서 Intern 과정을 하던 중 두 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인 저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환자를 접해야 하는 전문분야(specialty)를 택하기 어려웠고, 둘째로 출혈을 심히하며 사경을 헤매는 어떤 가난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들것에 실려왔지만 너무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시립병원으로 보내졌지요. 그 당시 우리의 Intern시절,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도 가난했는지!..... 그 후 1967년 7월 저는 미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생활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residency 연수과정을 앞두고 다리 수술을 해야만 했고, 그 후 1년 이상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고단한 삶과 끊임없이 투쟁을 했습니다. 잘 걸을 수 없는 저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병리학 residency를 선택해서 Metropolitan General Hospital, Affiliated with Case Western Medical School에서 마쳤고 보스톤(Cancer center) 병원에서 병리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주님께 약속드렸던 말씀이 끊임없이 저의 마음을 두드려 다시 Harvard Medical School내과 Residency를 마치고 1983년부터 California에서 내과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일 하던 중 1991년 11월 4일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주님께 저의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는 Cancer Free Survivor로서 산지2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유방암 조기 진단 Program을 만들고 저소득 가난한 환자들과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전적으로 돌봐 왔습니다. 1년에 약 1500명 정도 유방을 진찰하면서 유방암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한 번도 쉬지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유방암과 자궁암 조기진단을 하는 'free clinic program'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방암과 자궁암은 조기진단을 하면 완치될 수 있기에 저는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또 박에스더 선생님같이 자신보다 어렵고 가난한 환자들을 생각하는 의사로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해 주신 심사위원 일곱분들과 이대의대 모든 선후배님들과 저를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신 여러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의사로 만들어 주신 이화여자의과대학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일하고 있는 YWCA North Orange County California Organization의 모든 Staff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Breast Cancer를 위해 일하고 있는 Susan G. Komen Foundation 에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21:1-8" **배계자 (의대, '66)**

가라오께 / 뷰차드 가든

부부 / 그룹

동창들과의 만남

장기 자랑

수필

하얀 산과 빙하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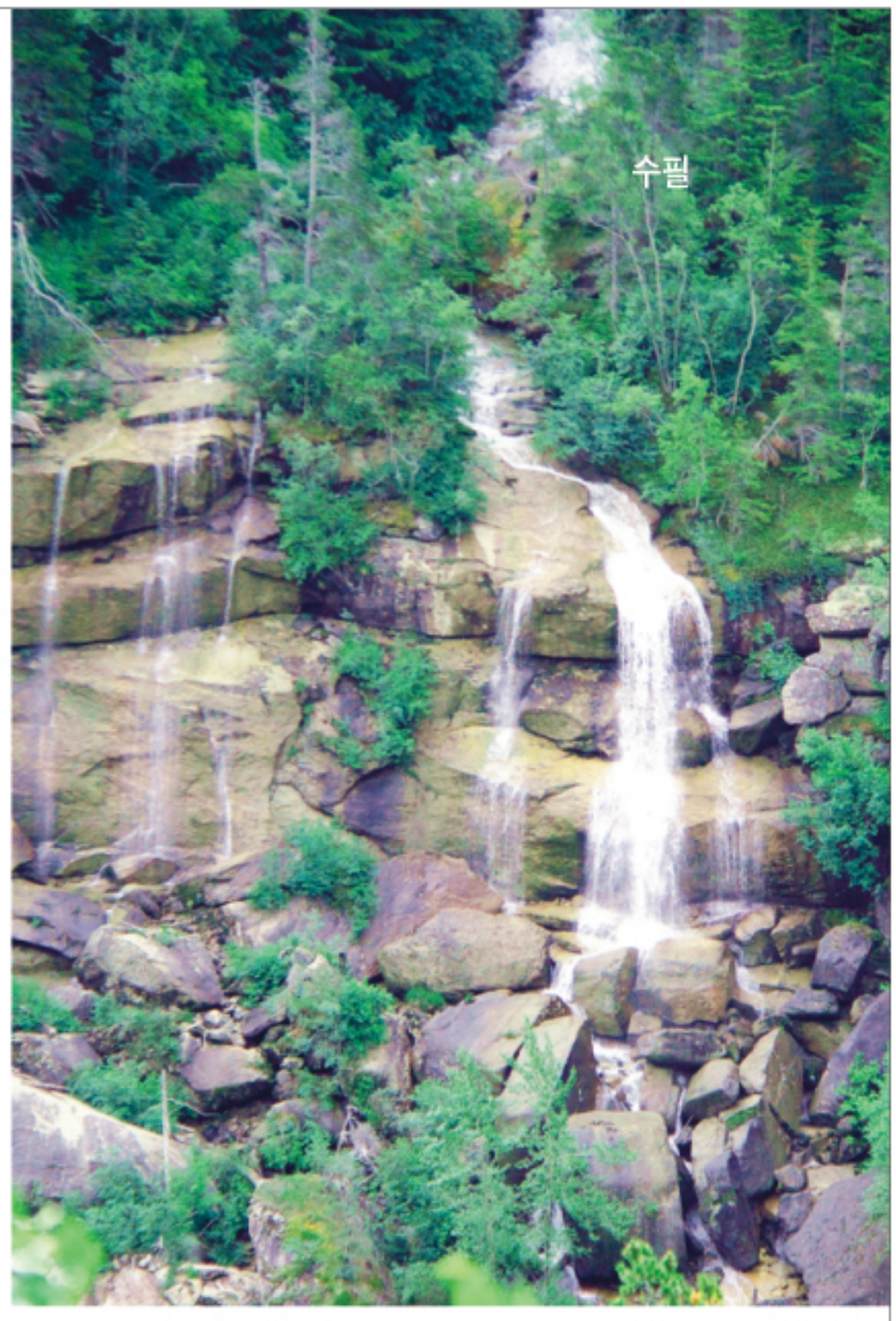
이지연 (의대, '67)

드디어 알라스카 크루즈 여행에 동참하기로 했다. 북미주 이화 동창회에서 알라스카 크루즈 여행을 계획했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상의 후 곧 등록 신청을 했다. 말로만 들었던 알라스카 미지도 보고싶고 또 이화 선후배 동창님들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기다렸던 이번 여행은 전에 느껴 보지 못했던 오묘한 여행의 매력 을 느끼게 했다.

떠나는 날 새벽 4시에 필라 공항으로 가는 도중 길이 막혀 잠시 당황했으나 무사히 시애틀 공항에 내리니 북미주 이화동창들이 반가이 맞아줬다. 정성껏 준비한 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임원들 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고, 낯익은 얼굴의 동문들을 하나 둘씩 보니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항구에 도착해 커다란 'Norwegian Pearl' 이름이 새겨진 배를 타고 7박8일의 항해가 시작되었다.

첫날은 흥분되어 잠도 안 오고 일출을 보기위해 새벽 4시에 선상으로 나가 빨간 태양이 어둠을 헤치며 수면 위로 서서히, 아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oh, beautiful!"감탄사를 터뜨리며 나도 모르게 감사기도를 드렸다. 잡다한 일상생활을 벗어나 광활한 바다의 파도를 보며 수면 위로 솟구치는 찬란한 붉은 아침 해를 보며 "이 세상을 비추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배는 Inside Passage로 노선을 잡아 항해를 시작했는데, 이 해상길은 앵커리지와 시애틀을 잇는 해상길로 예로부터 인디안들의 수송로로 이용되었으며 아름다운 해안과 장엄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절경이 계속 눈앞에 펼쳐졌다.

다음날 주노 시내관광을 했다. 큰 배에서 내린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야하므로 다소 복잡했으나 여행의 흥분으로 내 마음은 마냥 들떠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Skagway에 도착해 기차여행으로 이어졌다. 흰 눈으로 덮혀있는 고봉준령의 장엄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1896년 인근 Klondike 에서 금이 발견되자 금을 캐려는 광부들이 몰려들어 Skagway 는 광부와 물자를 운송하는 항구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White Pass Yukon Route 는 Skagway 에서 해발 3천피트에 있는 정상까지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폭설과 추위를 견뎌야 했던 고군분투하는 어려운 여건속에 3만 5천여명의 노동자의 땀의 결실로 마침내 완성되었다. 1900년 7월29일 철도회사 사장이 이를 기념하는 황금 대못을 박았다고 한다.


수필

다음날 Glacier Bay 빙하 국립공원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만년설과 빙하가 깔려있고, 흰눈이 덮힌 산봉우리들, 299여종 이상의 어류, 22종 이상의 조류외에 곰, 산양, 고래, 물개, 독수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1992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하루종일 정박된 배에서 자연의 신비함을 맘껏 느끼며 이화인의 사랑도 함께 나누었던 좋은 하루였던 것 같다.

이튿날 여섯째날은 Ketchiken시내 삭스만 원주민 마을을 관광하며 인디안들이 살던 집들과 소장품을 둘러보는 순간 옛시절이 떠오르기도 했다. 이날 저녁 매력적인 항구도시Vancouver에 도착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The Butchart Garden을 관람 했다. 장미꽃과 수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둘러보며 느낀 화사함과 그 향기는 우리 북미주 이화동창들 만큼 예쁜꽃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하얗게 흰 눈이 덮힌 산들과 큰 빙하가 둥둥 떠 다니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독수리가 유연자약하게 앉아있던 모습, 산과 들에 소나무 전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쌓여 있고, 숲 틈새에 있는 암벽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수들의 절경을 보며 역시 미국은 천혜와 축복받은 나라인 것을 다시 느꼈다.

알라스카 여행을 다녀온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큰 배 안에서 약속장소를 찾아 헤메기도 하고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지만 동창회 임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따스한 배려로 7박8일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화동창 선후배 님들과의 즐거운 만남, 장기자랑, 이희련 선배 님 부군 Dr. Kim 의 재치있는 유머와 사진촬영, 임원진들의 친절한 아름다운 미소, 헌신적 봉사, 따뜻하고 푸근한 사랑을 흠뻑 느꼈던 감동적인 알라스카 여행은 내 평생 잊지 못할 멋진 추억으로 남을 소중한 여행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의 일원이 된 것에 다시 감사 드리며 우리 선후배 동창들이 진정 자랑스러운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 동창들과 함께 오랫만에 불렀던 교가는 나의 심금을 울려 놓았다.

‘ 진선미의 우리 이화, 네 향기 널리 퍼져라, 아~~ 우리 이화’

동그라미

수십 개의 원이 부딪히며 깨진다. 훅~ 하며 불어올린 비누방울들이 잠깐 허공에 퍼지다간 사라진다. 어떤 것은 혼자 떠다니다 꺼지는가 하면 서로 엉기어 부서져 가는 것도 보인다. 오랜 시간 머물지 않지만 서로를 완전하게 품었다가 놓아주는 듯하게 보이는 것이 정겹다. 내가 어렸을 때엔 물에 비누를 풀어 놀곤 했다. 요즘엔 아예 비눗물과 방울 만드는 도구까지 포장되어 팔리고 있어 손자는 내게 조를 일이 없다. 마당 한 구석에서 시작된 비누방울 놀이는 점점 한가운데까지 퍼져 하늘이 온통 동그라미의 춤판이 되어있다.

동그라미는 예쁘다. 크면 큰 대로 마음이 넓어지는 듯 하고 작은 것은 귀엽고 따뜻한 느낌이 난다. 모나지 않고 연결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어디로 가든 함께 움직이고 흩어지지 않는다.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것 중의 하나가 동그라미로 만든 바퀴라고 한다. 그 크기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고 어떤 생산품에라도 쓰여지지 않는 곳이 없다. 아주 작은 시계의 부속품도 들여다 보면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연결되어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동그라미의 쓰임새는 흔히 볼 수 있다.

자연은 곡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해도 달도 둥글다. 직선으로 뻗어 흐르는 강도 볼 수 없으며 산줄기의 모양도 웨이브를 그린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는 부드러운 곡선을 볼 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곡선으로 이어져 있으리. 곧게 뻗는 것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테지만 모나지 않은 그것은 휘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 아닌가. 다소 원래의 모양이 바뀐다 하더라도 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각진 모양을 좋아하는 편이다. 둥글고 넓죽한 얼굴 탓인지 알 수 없지만 부드러운 목선의 옷 보다는 삼각 또는 네모형의 칼라를 고른다. 그릇도 직사각형이나 정 네모형의 것이 많고 가구도 반듯한 디자인이 정돈되어 보여서 좋다. 곡선보다는 직선을 선호한다. 성격도 다르지 않아 때로는 별스럽게 구는 일도 많다. 원만하지 못함이 드러나지만 쉽게 고쳐지질 않는다. 고집이 세어서 다른 이들과 의견 조율 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러질 지언정 구부리지 못하는 내가 한심할 때가 종종 있다. 세상엔 타협하며 지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아집은 더욱 굳어지는 것 같다.

한 점에서 시작한 동그라미는 처음의 자리에 돌아와야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오른쪽으로 돌리든 반대편으로 그려가든 자기의 한계 만큼 벌어졌다가 다시 아물리는 과정을 통해 원래의 시작점에 일치한다. 어떤 이는 아주 크고 멋진 원을 완성할 테고, 찌그러진 모양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그것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그려내는 작업이 아니겠는가.

비누방울 놀이가 싫증났는지 손자는
그림을 그린다.
둥근 얼굴 들이 도화지 위에 겹쳐진다.

김화진 (사생, '74)

우리집 뒷 마당

조효은 (교육, '71)

우리집 작은 뒷 마당은 지난 수 십년간 여러 번 바뀌었다. 세월에 따라 취향도 달라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뒷 뜰의 모습이 바뀌었다. 처음 이사와서는 우리와 친근한 소나무, 개나리, 목련, 단풍, 작약을 심고 작은 waterfall도 만들고, 잔디를 심어 동양식 정원을 만들었다. 정리 잘 된 깔끔한 마당이었다. 세 그루의 분재 소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서 일본 정원의 멋진 선의 소나무를 꿈꾸었던 우리를 실망 시켰고, 이곳 날씨에 맞지 않는 나무들은 잘 자라지도 못하였다. 한 때는 작은 숲을 상상하며 야생꽃과 마음대로 자란 큰 나무들로 마당이 채워지기도 했다. 또 한 때는 수십 그루의 장미로 장미화원을 만들었다.

은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마당의 모습이 또 바뀌었다. 이름하여 Organized, disorganized backyard 란 design concept이다. 반듯하고 잘 정리 된 마당도 좋지만 자연 그대로의 맛이 나는, 어찌 보면 시골스러운 경치가 좋아졌다는 얘기다. 잔디를 치우고 과일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심은 복숭아 나무가 꽃도 예쁘고 맛있는 백도를 잘 맺어 주었다. 우리 초보자들은 용기백배해져서 다음 해 과감히 스무 그루도 넘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다행히도 모두 잘 자라주어 고마운 마음이다.

요즈음은 어디 또 심을 곳 없을까, 어느 나무를 과일나무로 대체할까 궁리하고 또 궁리한다. 아마 나무들이 우리 얘기를 들을수 있다면 공포증이 생겼을 것 같다. 이전에는 상록수라면 우리에겐 흡족한 나무였지만 이젠 우리에게 과일까지 제공하는 나무라야 우리 마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꼭 오래 간직하고 싶도록 정이 가지 않는 나무는 과감히 케어내고 과일 나무로 대체했다.

나무와 사람의 관계는 이럴지언정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리 모멸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람은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가 있으니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은 난 벌레가 아주 무섭다. 오래 전에 상추를 기르다가 연두색 벌레를 보고 다시는 벌레가 지나간 야채를 먹을 수도, 기를 용기도 없어졌다. 몇 년전 깻잎이 벌레도 없이 잘 자라 주어 친지들과 두루 나누어 먹으며 깻잎 덕에 인심 좋은 사람이 되었다. 다시 용기내어 상추, kale, 쑥갓, 파, 토마토, 갖은 herb를 심기 시작했는데, 씨를 심고 기다리다 새 싹이 땅을 밀고 나오면 정말 경이롭다. 일기가 항상 그럭저럭 비슷한 곳에서 사는 우리는 슬쩍 넘어 가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지가 못하다. 이제는 과일나무에 꽃이 피면 봄이 왔고 우리는 겨울내 기다려 온 씨를 뿌린다. 여름의 햇볕도 과일이 무르익게 되니 새롭고 고마워졌다.

여행 길을 떠나면서 보는 이 없이 자랄 과일나무가 못내 마음에 꺼린다. 애정이 생기는 과일 나무들도 생겼다. 이제는 쉽게 나무를 케어 낼리는 없으리라. 어떤 채소는 집에서 기르지만 아까워서 보기만 하고 사다 먹는 일도 있다. Artichoke이 이렇게 신기한 꽃을 피우는 것을 안 것도 겨우 몇 년전, salad에 금방 뜯어 온 thyme, basel, cilantro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dressing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하루사이 눈에 띄게 자라는 채소를 지켜보는 즐거움은 경험 한 사람들만 알리라. 채소와 과일을 기르며 super market의 완벽하지 않은 야채와 과일에게도 관대해졌다. 이건 나이 탓일가 아님 기르는 자의 너그러움일가. 우리의 작은 수고를 채소와 과일 나무가 참으로 많은 것으로 되돌려 준다.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인내도 배우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과일과 채소를 기르며 우리 삶이 더욱 풍요해 짐을 감사한다.

별난하루

호진희 (가정, '68)

이번 Mother's Day는 벼르기만 하던 일을 처음으로 저지른 특별한 날이었다. 신문에 유명한 작가나 교수 또는 인기 목사들의 강연 광고가 가끔 기사로 난다. 어떤 때는 가서 듣고 싶을 때도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여 생각만 하고 거의 가지 않았다. 인기 있다는 김동길 교수의 강연 조차도 간 적이 없는데 우리 세대 여성들의 감정을 시원하게 풀어 내는 작가 박완서의 강연에 가본 것이 유일 하다.

그러다 법륜 스님의 법회와 "즉문즉답"이 있다기에 바람도 쏘일 겸해서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엘에이 북쪽으로 2시간 30분이나 가야하는 "정토 수련원"이란 곳으로 함께 가자고 누구에게 이야기 해 볼새도 없이 혼자서 갔다. 아침 8시에 약속 장소에서 가득 모인 사람들을 버스에 싣고 출발을 하는데 거의 불자(buddhist)들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11시 조금 넘어 도착한 "정토 수련원"은 멋진 한국식 절간으로 생각했는데, 사막 한가운데 서있는 초라한 모빌 하우스 같은 건물이어서 저으기 실망이 되었다.

법회는 지루하고 재미도 없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의 말씀은 기독교 가르침과 별로 다를게 없었다. 스님의 말씀이 워낙 오픈 마인드라 나처럼 기독교인 특히 천주교인도 꽤 눈에 띄였다. 법륜 스님이 저술한 책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10권은 넘어 보였다. 그 중에 나도 불교에 관한 기본 진리서인 "붓다"라는 책을 한 권 샀다. 그리고는 사찰 음식으로 점심 공양을 하였다. 물론 모두 채소이고 간도 거의 없는 슴슴한 음식이다. 각종 버섯을 채썰어 부로컬리와 볶은 버섯 볶음, 채썬 우엉을 고명으로 얹은 두부 부침, 야채 잡채, 젓갈을 사용하지 않은 슴슴한 김치와 무우청 겉절이를 맛있게 먹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나에게는 좋은 건강 음식이었다.

강연의 하일라이트는 즉문즉답(Questions and Answers)시간이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스님의 재능이 돋보였다. 그 곳에 모인 분들이 무엇을 물어보든지 정말 마음에 드는 대답을 거침없이 해 주었다. 결혼도 안해본 스님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도 어찌나 맘에 쏙 들게 즉답을 하는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사후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모든 사람이 죽는게 두려운데 죽음 후에 천당엘 간다는 게, 또 환생을 하여 영원히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은 완전히 끝이라 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셨다. 결국 기대했던 멋진 답이었다.

다시 LA로 돌아 온 시간은 오후 6시, 그렇게 해서 하루가 다 갔다. 혼자서가 아닌, 여럿이 함께 잘 지낸 특별한 하루였다.

'자랑스런 동창'
또는
'아름다운 동창'
추천 바랍니다.

이화동창으로 사회를 위해 공헌하신 분,
전공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분,
또는 동창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창들의 업적을 동창회보에 소개하고
동창회에서 표창하고자 합니다.

나의 미국유학의 꿈...

6.25 사변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찾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당시 학생들의 향학 열기 또한 대단했다. 서구 문명이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었고 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이 하나 둘 씩 늘고 있었다.

1955년에 대학을 졸업한 나도 미국 유학을 꿈 꾸었다. 그때는 대학 3년을 수료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유학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엄격한 조건은 유학 중에 한 과목이라도 낙제를 하면 곧 귀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난한 나라에서 유학생이 학비로 국고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유학시험은 대사관 영어시험과 대한민국 문교부에서 시행하는 영어, 국사 그리고 전공과목 이었다. 시험과목 중 내가 제일 걱정 했던 것은 영어라서 영어공부를 위해 비싼 원어민 개인 교습, 영어학원 또는 동승동에 있는FLI (Foreign Language Institute)등에 돈 꽤나 갖다 바치며 열을 올렸었다. 첫 번째 유학시험에서 다행히 영어와 전공과목(약학)은 합격을 했으나 국사에 낙방을 하였다. 학교 다닐때 제일 싫어하던 과목이 역사와 지리였고 그 과목을 소홀히 한 댓가를 톡톡히 치른셈이다. 나는 할 수 없이 국사책을 사서 입시공부를 하듯 줄을 그어가며 달달 외우며 공부를 했다. 그래서 세번 만에 합격을 했을 때 나는 과거급제라도 한 기분이었다. 합격생 명단은 문교부 청사 앞 게시판에 붙여 알려주었다. 그러나 시험이 일년에 두번 밖에 없어서 그사이에 2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현 주 (현경애 약대, '55)

드디어 출국을 하게 되었다. 떠나기 전에 사방에서 베풀어 주었던 송별 잔치에 몸살을 앓았다. 출국날에는 우리 집안 모든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한 소대가 될만큼 나를 환송하러 비행장에 나왔다. 50여년 전 어머니께서 나를 붙잡고 "엄마 없이 외국에서 너 혼자 어떻게 살겠니?" 라고 말씀 하셨던 걱정어린 음성이 내 귀에 아직도 생생하다.

마침내 학수고대했던 미국 유학생활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고생의 시작이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교과서가 없는 과목은 같은 반 학생들의 노트를 빌려 손으로 베끼고 달달 외워야 하는 고생도 했고 글씨는 얼마나 엉망이였던지 뭐라고 씌여 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해야 했고 시험도 봐야 했고 정말 죽도록 많은 고생을 했다. 어느덧 학기말 시험이 다가왔다. 제일 힘든 것은 그 어렵다는 세균학 시험이었다. 시험문제는 "What is a Bacteriology?" 빈종이를 메꾸는 주관식 문제.... " 여기서 낙제하면 한국으로 소환 당한다." 생각만해도 눈 앞이 캄캄했다. 그래도 이대 약학대학에서 세균학 공부를 몇년씩 한 덕분에 그럭저럭 답안지를 채웠다. 일주일 후에 성적표를 받을텐데…걱정이 태산 같았다. 낙제 점수를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망신스런 일이 일어나면 어쩐담.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그러나 시험결과는 'Pass mark' 아니 이럴 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난 몇 번씩 외쳤다.

그동안 성적때문에 나를 괴롭혔던 두통도 말끔히 사라졌다. 이렇게 첫 학기를 보내고 나의 유학생활은 시작되었다.

고국 여행길에 찾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최경숙 (영문, '66)

지난해 5월 고등학교 50주년 재상봉 귀국 여행길에 막 개관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둘러보며 박물관 후원금으로 다시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의 성금($3000)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퍽 뜻있는 일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당시 기록과 녹화된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이 멍해졌던 일은 나의 마음 한구석에 오래동안 깊게 남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한 [전쟁과 여성박물관]이 2012년 5월 5일 서울 마포구 성미산 자락에서 문을 열었다. 박물관 설립을 추진한지 9년 만이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성노예'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게 1991년,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2년 부터 시작한 수요집회가 20년 뒤 1000회를 넘기고서야 드디어 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이 건물을 짓기까지 도와준 사람은 오직 시민들이었다. 정부는 "사회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며 지원해 주지 않았고 기업은 "기업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거절 했단다. 부지를 찾아 지방과 서울 여기 저기로 헤매던 끝에 서울시로 부터 서대문 독립공원 부지를 제공받아 기쁨과 감격을 잠시 느끼기도 했었다. 그러나 독립 운동의 '성지'에 '위안부'박물관을 세울 수 없다며 광복회와 순국선열 유족회 등 독립 운동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그 소식에 할머니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성금으로 20억원을 모아 2011년 8월 마포 성미산 끝자락에 위치한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을 개조. 박물관 공사를 시작했다.

전쟁과 여성인권 - 사람들이 잘 관심 갖지 않는 주제다. 한국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역사, 여성인권이 바닥인 사회이니까, 그런데 전쟁의 피해자인 그들의 손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현실이 되기위해 80이 넘은 할머니들, 가장 약자인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 한복판에 박물관을 세워냈다.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 지원금을 모아서 백만원 혹은 이백만원의 성금을 후원해 주었다. 이 "주춧돌

기금"에 노동자, 일반 회사원, 가족, 학생, 친목모임, 해외동포들,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등 많은 사람들이 돼지저금통 등 소액부터 고액에 이르기까지 성금을 보내주워서 약 9년 동안 20억원이 넘는 기금이 모였다.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도 2007년 10월에 동창 3명이 서울의 쉼터를 찾아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눈 후 박물관 건립을 위한 우리 동창들의 성금($3000)을 정신대 대책위원회 윤미향 대표에게 전달했었다. 윤대표는 이번 두번째 우리 동창회의 후원금에 감사하며 박물관 2층 중앙 까만 벽면에 새겨진 명단에서 [이화여대 북미주 동창회]를 가리켰다.

대지 약 104평의 이 박물관은 동선이 중요하다. 지하 1층→계단→2층 → 1층의 순서를 밟아야 박물관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단다. 로비 왼쪽 철문을 열면 6m 높이의 옹벽에 그려진 한복 입은 소녀의 옆모습과 꽃 그림이 방문객을 맞았다. 소녀의 시선을 따라 저벅저벅 소름 돋는 소리가 나는 쇄석길을 걷다 보면 문득 지하 영상전시관이 나오며 영문도 모른채 컴컴한 전쟁터로 끌려간 위안부들의 처지를 실감케 했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좁고 낮은 {할머니들의 공간}은 가운데 멍석과 고무신 하나만 있을 뿐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이곳이 '위안소' 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내가 바로 살아 있는 증거인데 일본 정부는 왜 증거가 없다고 합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겪은 일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 자신들의 역사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할머니들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지하 1층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2층으로 가다보면 계단벽에 할머니들의 사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등 할머니들의 자필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2층에 올라와서는 헤드셋으로 할머니들의 실제 육성을 들으며 김준기 교수의 {소녀 이야기}라는 에니메이션을 감상했다. 그 옆의 전시대에는 군인의 일기, 일본 정부에서 군인들에게 지급한 돌격 1호 콘돔 등을 볼 수 있었다. 2층 오른편에는 20년간 1000회가 넘는 수요 집회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그대로 본따 배치했다. 맨발에 주먹을 꼭 쥐고 있는 '소녀상' '평화비'가 옆에 비어있는 의자 때문인지 너무 슬퍼 보였다. 1층으로 내려오면 기획 전시실인데 유리문 앞의 야생꽃들과 푸른 잔디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소박한 공간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향한 투쟁의 흔적이 살아있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눈물을 달래고, 왜곡 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역사를 바로 잡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서현숙 의료원장 방문

지난5월 25일에 북미주 의대동창회 김명미(의대, '67) 회장은 본교 의료원장 서현숙 박사를 모시고 50여명의 남가주 의대동창과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본교의과대학에서 선정한 제 5회 박에스더 상을 배계자(의대, 65) 동창에게 수여하는 시상식을 겸한 의미있는 모임이었다. 배계자박사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해 2천여명의 유방암 환자를 진단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공을 인정 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서현숙의료원장은 이대 동대문병원이 서울시의 동대문 성곽 보존계획상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목동병원과 통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현 목동병원은 의대, 간호대, 약대 학생들이 training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지역여건상 연구시설을 확장할 수 없어서 현 병원 가까운 김포공항 입구 마곡에 부지를 마련하여 제2부속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다. "새병원은 규모나 시설 그리고 연구와 진료의 전문성 면에서도 탁월한 위상으로 이화 브랜드를 다시 정립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으로 여성의 건강관리는 이화여대병원이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치료받는 세계적인 병원으로 이화의 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해외동포들을 위한 최고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이화동창들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특별 우대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미동창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이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큰 메아리가 되어 이화의료원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바랬다. 이 날 행사에는 의료원장을 수행한 대외 협력실장 정성애박사와 대외협력팀장 이후정 동창이 참석했다.

이화 동문 조각회 초대전

이화대학교 동문 조각회 초대전이 지난 1월 22일~2월 9일 캘리포니아주 Buena Park에 있는 Lynn J. Gallery(Linda Kim 대표)에서 열렸다. "Volare over the land" 주제로 열린 남가주 초대전에는 한국으로 부터 22명의 조각과 동창들의 작품들이 은은히 들려오는 아름다운 첼로음악 배경과 잘 조화되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층 즐겁게 했다.

올해는 특히 조소과 동창회와 이화 조각회의 통합을 기념하고, 보다 역동적이며 진취적으로 뻗어나가는 이화 조각회의 앞으로의 행보를 모색하고자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함이 공존하며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 되어나가는 과정들이 제시됨을 느낄 수 있었다.

Central Florida (Citrus Hills)

센튜럴 플로리다

이동우 선배님 팔순잔치 축하 노래

이동우 선배님 팔순, 생신을 축하해요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분의 이념따라
어두운 조국의 역사 땅방에 알리신분
이화의 딸 정신속에 큰일을 해내셨네

이동우 선배님 팔순 이화의 자랑일세
강인하고 의욕적인 그분의 희생속에
여성의 존엄과 사랑 땅방에 알리셨네
시트러스 힉스 이화동문 선배님 사랑해요

Citrus Hills 동창회는 매년 1월 친목을 겸한 총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특별한 모임이었다. 본 지회 고문으로 계신 이동우(영문, '57)선배님의 산수(傘壽) 잔치가 3월에 있을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했다.

3월30일(토)에는 이동우 선배님의 산수(80세 생신) 축하연에 가족과 친지 그리고 Citrus Hills 지역에 살고 있는 동창가족과 친구분들 100여명이 참석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Citrus Hills 지회 고문이신 이동우 선배님께서는 1992년 "워싱톤 정신대 대책위원회" 를 창설하시고 지난 20여년동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으며 여성의 존엄과 인권확장에 한 획을 긋는 큰 일을 하시고 계신다.

우리 지회 이화동창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동우 선배님의 팔순을 축하드리는 축송을 함께 불렀다.

Citrus Hills 지회동창회에서는 연중총회 외에 일년에 두번씩 만나 동창간의 친목을 다지며 우의를 쌓아가고 있다.

회장: 김용길(영문, '59) 이정은(가정, '60)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The 4th Exhibition of the Philadelphia Arts Connection 이 "The Memories"란 주제로 지난 4월 10일에서 5월 1일까지 열렸다. 그림을 전공 또는 취미로 창작생활하는 Philadelphia 지역 동창들간의 이 전시회는 4년전 시작 되었으며 이번 전시회는 뉴욕 지역 동창들과 함께 하는 특색있는 전시회였다. 뉴저지 잉글우드에 있는 Korean Community Center 의 The Gallery Bennett 에서12명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Philadelphia지역의 오경자(약학, '65) 동창과 이정선(자수, '76)동창이 참여했다.

Chicago
시카고

시카고 동창회 사업보고
(2012년 7월1일 ~ 2013년5월3일)

- 구광자 이사장이 죠앤현 동문의 모친 장례식, 사회사업가 김혜자 동문의 장례식 그리고 김효성 동문의 모친 장례식에 조기를 갖고 참석해 조의를 표했다.
- 9월 15일(토) 저녁에 70년도 이후에 졸업한 20여명의 동창들이 시카고 문화회관에 모여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참석인원의 75%이상이 처음 참석한 동창이었다.
- 10월 6일(토)에는 대선배님 9분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고 선물도 드렸다. 같은 연배들끼리 한자리에서 만나게 돼 매우 기뻐했다.
- 이튿날 7일(일)에는 Des Plaines 강가에 위치한 단풍이 물든 숲에서 '추억의 가을소풍'을 가졌다. 이날 50여명의 동창과 가족들이 모여 바베큐 점심 식사, 게임, '나름 가수다' 장기자랑, 보물찾기를 하며 마음껏 가을을 만끽했다.
- 12월 한달 동안 다양한 모임이나 개인적 방문을 통해서 모교총동창회에서 발간한 2013년 동창수첩 100권을 시카고 동창들에게 전달했다.
- 올 2월 19일부터 5주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SmartPhone, Galaxy Tab, iPhone, iPad 에 대한 강좌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과 시카고 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강좌기간동안 100명이상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 4월 20일(토) 봄나들이 만보걷기를 12명이 참여했다.
- 지난 10월 27일 (토)에 문화회관에서 가을 정기 임원이사회에 35명이 모였으며, 올 3월23일 (토)에는 같은 장소에서 봄 정기 임원이사회로 33명이 모였다.

Las Vegas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지회에서는 2012년도 북미주 동창회에서 계획한 Alaska Cruise 연례모임에 부부동반으로 10명이 참석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line dance 를 뽐내며 장기자랑에 참석했다. 또한 자연의 신비함을 마음껏 즐기며 타주에서 온 이화동창들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고 우정을 나누었다.

연말에는 권영애회장(의대, '64)댁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겸 연말모임을 부부 동반으로 가졌다. 그리고 올 봄에는 부부동반으로 Red Rock Canon 에서 자연의 꽃 향기를 마시며 등산하며 선후배간의 즐거운 picnic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지회에서는 이화동창들이 지역사회를 도우며 봉사하는데 힘을 합쳐 후원하고 있으며, 2013년 Chicago 북미주 동창회 모임에서 여러 동창들과의 반가운 재회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기 김계자 (신방, '65)

Washington D.C.
워싱턴 D.C.

2012년도 행사보고

- 1월 7일 - 임원회 모임 및 새해 점심을 김경애 회장 (서양화, '68) 댁에서 가졌다.
- 2월 25일-주미 한국 대사관 문화원에서 개최 될 이화 미술전시 "Arirang" 기획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었다.
- 3월 9일 - 김경애 회장의 갑작스런 작고로 '워싱톤 한인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고, 이화 동창 선후배 및 친지 200여명이 참석했다. 장례식에는 한영숙 이사장님과 김홍자 동창, 김광자 동창이 고 김경애 회장을 기리는 조사를 했고, 강영미 동창이 고 김경애 회의 경력을 읽었으며 김정화 동창이 쓴 시 낭독을 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 5월 4일~26일- 올해로 세번째 열린 Blossoming Washington Pear III "ARIRANG" 미술전시에는 이화 동창 17명이 참여했으며, 5월 4일 저녁 6시 워싱톤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과 교민들의 관심가운데 문화원에서 Opening Reception을 성황리에 가졌다.
-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Green Life" 란 주제로 Glenview Mansion Art Gallery에서 열린 전시회에 김홍자교수를 비롯하여 이대 미술 대학 졸업생들 포함한 21명의 여류작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관심을 모았다.
- 11월 3일- 버지니아에 위치한 한미과학협력 센터 컨퍼런스 룸에서 "이 시대를 사는 여성이 만들 수 있는 밝은 미래" 라는 주제로 워싱턴 한인사회의 롤 모델인 석은옥 여사(고 강영우 박사 부인)를 강사로 모시고 이화여대 동창들은 물론 워싱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초대해 의미있고 성공적인 세미나를 열었다.
- 11월 30일에는Army Navy Country Club에서 워싱턴지회 동창회 연례총회 및 연말 파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졌다.

임원진 (2012~2013)

회 장:	강영미 (서양화, '84)	행사부:	허재희 (섬예, ??)
부회장:	윤소라 (사회, '86)		정옥지 (동양화, '65)
총 무:	김정선 (조소, '85)	무용부:	우다영 (무용, '67)
재 무:	김정화 (조소, '82)	종교부:	오정숙 (서양화, '88)
서 기:	정혜선 (동양화, '90)	음악부:	이명혜 (피아노, '74)
		모금부:	김광자 (불문, '66)

후원 이사장: 김홍자 (섬예 '58입학 '07 졸업)

당신을 위하여

효자손 찾다찾다 못 찾아
등 긁어 줄 사람 찾을때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

목이 몹시말라 시원한 샘물
한 동이 길어다 줄 사람 찾을때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

몹씨 슬퍼 부드켜안고
울 사람 찾을때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
손 잡고 같이 산보할 사람 찾을때
그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

내가 느끼는 편안함 그대로
당신에게 편안한 안라의자가 되고 싶다
포근한 마음 전해주는
따스한 아랫목이 되오리다
당신을 위하여`

少植 金澤洙

오민자 (미술, '63)동문Artist Minja Lah를 소개합니다.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which are visible. That is what I wish to convey to you. Myprints, woodcuts, as well as my acrylic, are made from a multitude of sizes, forms, lines, and points. You cannot see the process, but the painting breathes on its own, fills the space on canvas and in the viewer's mind…… I hope to tell you this through my art : life is terrifically simple and complex, and we may not understand what we see in life, but we can all step back, look, and appreciate." 라고 자신의 작품세계를 요약하신다.

미술 전문책자 'The Chicago Art Scene', 'Nothwest Cultural Council Poet and Artist Chapbook', Living Artists of today Contemporary Art International' 에서 Artist Minja Lah를 소개하며 그의 작품들이 출판되기도 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The Marin Society of Artists' 전시회에 입상 하셨고 최근에는 'The Publisher Choice Award' 'Art & Beyond' May/June magazine Cover Competition에 두 작품이 입선되어 상을 받으셨다.

작품 FANTASIA #19,
Arcrylic on Wood Board

신정순(국문, '79) 동문이 두번째 동화집을 출판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을 통하여 등단한 신정순 동문(국문, '79)이 두 번째 동화집을 출판 하였다.

재미동포 아이들이 미국에서 겪는 갈등을 담은 『착한 갱 아가씨』에 이어 발표한 『Hello 도시락 편지』 (재미마주의 「학급문고」 제10권)는 미국 학교 4학년 교실에서 공부하는 한국 아이 "별이"의 이야기이다. 별이의 목표는 미국 아이들과 똑 같아지는 거였다. 그러다 보니 영어를 못 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가짜 도시락 편지까지 쓰게 되는데 이것이 탄로나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이야기는 한국을 떠난 아이들이 낯선 문화 속에서 접하게 되는 아픔, 혼란, 외로움 등을 담아 낸 것으로 미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저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리얼리즘 수법의 동화이다.

이 책의 작가 신정순 동문은 현재 미국 시카고의 노스이스턴 대학 외국어 학과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황진수(의학, '64) 동문의 수필집- 번지점핑

황진수 동문(의학, '64)은 졸업후 도미하시어 소아과 전문의로서 열정을 다해 어린이 건강을 위해 40 여년을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최근에 "번지점핑" 이란 수필집을 출판했다.

나의 인생길에서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 Bunge Jump 를 몇 차례나 모험을 하며 살아왔던 것은 튼튼한 줄로 잡아매 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 이었다.

어릴때에 매료되었던 문학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했던 황 동창은 지난 2001년 한국 수필에 신인 수필가로 등단했다. 가족들에 대한 추억, 소아과 전문의로서의 경험, 신앙인으로서의 신앙 고백등 진솔하고 주옥 같은 글이 따뜻하고, 잔잔하게, 또한 예리하게 우리 마음을 파고 든다.

또한 동문은 의사로서의 바쁜 생활 중에도 게렛(Garrett)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게렛신학대학원 재단이사로서 학교의 방향 지침에도 기여하고, 세계선교부 여성국의 한인 여선교회 자문위원, 미 한인 감리교회 목회 강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제자화 성경학교 교장으로서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다.

영원히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다시 피어나곤 하는 들꽃을 좋아하신디는 황 동창이 계속 아름다운 글도 쓰며 선교사업에 정진할 수 있게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기원한다.

김성혜(영문, '66) 동창이 11번째 책 'The Way Out'(영문판) '숨겨진 탈출구'(한글판)을 출판했다.

'…같은 고향사람이라도 김일성은 동상이 수백개나 되는 인물이 되었는데 나, 김성혜는 쫓겨나 태평양 건너에 살고있다. 그래도 내 생전 언젠가 한번은 우리를 쫓아냈던 김일성, 김정일의 이야길 하고 싶었다. 같은 이웃으로 살다가 목숨하나 겨우 부지하고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이, 또 그리살다 말없이 사라져야 할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 억울했나보다. 그래서 이 나이에 기를 쓰고 쓴 책이다.'

1979년에 썼던 "이민가족" 부터 시작해 그 동안 열한권의 책을 출판했다. 그 중 "서울대보다 하버드를 겨냥하라" 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그 책이 유학의 물꼬를 텄다고 하지만 사실 쓴 목적은 하버드를 가라는 소리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인성 교육이기에 앞서 대학 입시 교육으로 되어 학생들이 시달리는것이 안타까워 썼던 책이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었던 때문이다.

김성혜 동창은 1966년도에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미국으로 유학와 스카렛 칼레지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현재 위스컨신 의대에서 심장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부군 최병일 박사와 밀워키 위스컨신에 살고 있다.

김정옥(음대, '68) 동창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정옥(음대, '68) 동창이 지난 6월 3일 Oak Brook Christ Church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할머니를 똑 닮은 똘똘한 손녀딸, 아들 딸 며누리 사위 등 온 가족이 함께했고 그를 아끼는 친구 친지 교우들이 함께한 자리였다. 이 연주회는 김정옥 동창이 40여년을 살아왔던 제2의 고향 시카고를 떠나면서 작별인사를 대신한 작별 연주회였다. Oak Brook Christ Church는 파이프 올간으로 유명한 교회로 그녀의 연주는 마치 천상을 오르내리는 전율, 웅장함이 있었고 파이프 올간의 연주는 흔하지 않아 색다른 감동을 주었다.

김정옥 동문은 한미장로교회에서 30여년을 한결같이 피아노 오르간 반주자로 봉사해 왔었다. 두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생활, 한글학교 교사, 큰 교회 전임 반주자로 사역하는 바쁜 삶 속에서도 그녀는 음악에 대한 열정의 끈을 놓지못했고 루즈벨트 음대에서 파이프 올간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13 임원진 명단

* Chair person

직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이사장	장 명 주	(의대77)	Sioux Falls, SD
회장	송 복 진	(영문 73)	Chicago, IL
제1부회장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사무총장	임 성 숙	(물리81)	Los Angeles, CA
준비위원장	홍 명 희	(의대 69)	Chicago, IL
	구 광 자	(가정 67)	Chicago, IL
총무	성 유 나	(영문 79)	Chicago, IL
서기	송 희 영	(행정학 85)	Chicago, IL
	하 양 신	(가정 87)	Chicago, IL
회계	김 희 영	(음대 75)	Chicago, IL
	이 영 희	(비서학 73)	Washington, DC
감사	홍 명 희	(의대 69)	Chicago, IL
자문위원	한 영 숙 *	(영문 60)	Los Angeles, CA
	조 용 옥	(의대 59)	Chicago, IL
	김 정 희	(가정 60)	Chicago, IL
	이 희 련	(의대 63)	Las Vegas, NV
	이 학 혜	(의대 60)	Memphis, TN
	김 광 자	(불문 66)	Washington, DC
	최 경 숙	(영문 66)	Southern NJ
	조 효 은	(교육 71)	San Diego, CA
공천위원	장 명 주 *	(의대 77)	Sioux Falls, SD
	민 경 해	(영문 65)	Vancouver, BC
	이 정 은	(가정 60)	Citrus Hills, FL
	권 오 화	(가정 61)	Chicago, IL
	송 복 진	(영문 73)	Chicago, IL
모금위원	한 영 숙 *	(영문 60)	Los Angeles, CA
	김 광 자	(불문 66)	Washington, DC
	구 광 자	(가정 67)	Chicago, IL
재정관리위원	김 정 희 *	(가정 60)	Chicago, IL
	박 혜 경	(화학 82)	Las Vegas, NV
	이 영 희	(비서학 73)	San Diego, CA
회칙개정위원	장 명 주 *	(의대 77)	Sioux Falls, SD
	이 희 련	(의대 63)	Las Vegas, NV
	이 정 은	(가정 60)	Citrus Hills, FL
	윤 방 순	(정외 69)	Seattle, WA
	이 주 연	(의대 59)	Plano, TX
	이 화 섭	(약대 60)	Chicago. IL
사회봉사부	심 현 숙 *	(사복 62)	Minnesota, MN
	오 금 녀	(영문 49)	Minnesota, MN
	안 정 옥	(의대 70)	Los Angeles, CA
연예부	구 은 서 *	(간호 73)	Chicago, IL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예배, 선교부	김 진 희 *	(정외 87)	Chicago, IL
	오 정 숙	(서양 88)	Washington, DC
	고 인 나	(교육 60)	Washington, DC
음악부	이 명 혜 *	(피아노 74)	Washington, DC
	조 남 선	(성악 73)	Las Vegas, NV
	김 소 영	(불문 63)	San Diego, CA
	윤 미 라	(기악 60 입)	San Diego, CA
홍보부	권 오 화 *	(가정 61)	Chicago, IL
	조 정 기	(의대 66)	Madison, WI
	이 동 우	(영문 57)	Hernando, FL
	윤 용 임	(의대 64)	Rifton, NY
	권 영 자	(의대 68)	Seattle, WA
	이 삼 희	(가정 68)	Morganville, NJ
	김 화 숙	(약학 68)	Los Angeles, CA
	안 미 사	(신방68)	Los Angeles, CA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박 선 영	(가정 66)	Washington, DC
	권 영 애	(의학 64)	Las Vegas, NV
회원부	한 수 강 *	(영문 66)	Las Vegas, NV
	이 삼 희	(가정 68)	Morganville, NJ
	장 현 자	(의대 67)	Los Angeles, CA
	임 삼 규	(영문 54)	Las Vegas, NV
	민 경 해	(영문 65)	Vancouver, BC
	김 성 혜	(영문 66)	Milwaukee, WI
	김 초 영	(사회생활 60)	San Francisco, CA
장학부	조 효 은 *	(교육 71)	San Diego, CA
	유 진 순	(심리 57)	Chicago, IL
	이 상 인	(의대 57)	Orlando, FL
	고 순 정	(의대 77)	Los Angeles, CA
	김 정 순	(의대 77)	Los Angeles, CA
	윤 중 식	(의학 59)	Chicago, IL
	윤 영 희	(의대 70)	Welsh, LA
교육부	이 윤 경 *	(가정 67)	Scarsdale, NY
	윤 방 순	(정외 69)	Seattle, WA
	김 영 희	(약학 68)	Chicago, IL
	이 영 희	(영문 68)	Chicago, IL
미술부	김 홍 자 *	(섬예58입07졸)	Washington, DC
	정 옥 지	(미대, 65)	Washington, DC
	이 희 자	(미대, 65)	Washington, DC
	오 구 미	(의대 78)	Minnesota, MN
편집부	최 경 숙 *	(영문 66)	Southern NJ
	호 진 희	(가정 68)	Los Angeles, CA
	강 정 애	(의대 67)	Los Angeles, CA
	유 진 순	(심리 57)	Chicago, IL
	이 정 순	(화학 57)	Chicago, IL
	성 유 나	(영문 79)	Chicago, IL

* Chair person

Program Schedule

9월 27일 (금)

12:00 pm	등록
3:30 pm ~ 6:00 pm	임원이사회
5:30 pm ~ 7:00 pm	저녁식사
7:30 pm ~ 9:30 pm	Get-together 동창소개 & 오락

9월 28일 (토)

6:15 am ~ 7:00 am	숲속에서 체조 & 걷기
7:00 am ~ 8:00 am	아침식사
8:00 am ~ 1:30 pm	Frank Lloyd Wright & Hemingway House Tour
2:30 pm ~ 5:00 pm	Workshop 1.신정순 교수 2.장명주 MD 3.윤방순 교수 Ph.D.
5:00 pm ~ 6:00 pm	의과대학 동창회 meeting
6:30 pm ~ 11:00 pm	연례총회 및 Annual Grand Banquet

9월 29일 (일)

6:15 am ~ 7:00 am	숲속에서 체조 & 걷기
7:00 am ~ 8:00 am	아침식사
8:00 am ~ 8:45 am	주일예배
9:30 am ~ 4:00 pm	Chicago Tour Obama House, Architecture Boat Tour, Millennium Park, Michigan Ave., Navy Pier, China Town
5:00 pm ~ 9:30 pm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미술 전시회 Reception 및 故 김경애 동창 추모 스라이드 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9월 29일 (일)

6:15 am ~ 7:00 am	숲속에서 체조 & 걷기
7:00 am ~ 8:00 am	아침식사
9:00 am ~ 11:00 am	간담회

2013 임원 이사회 Agenda

September 27 (금요일)
3:00~5:00 p.m.

- 개회선언
- 이사소개
- 전 회의록 낭독
- 사업보고: 각 분과위원 활동 보고
- 결산 및 예산안 심의
  - 2013 결산보고
  - 2014 예산안 심의
  - 재정관리휘원회 보고
- 공천위원회 보고
- 임원 소개
  - 신임회장 / 수석부회장 소개
- 경과보고: 통합 동창회를 위한 활동
- 2014 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
- 기타 안건과 공지사항
- 폐회

총회 Agenda

September 28 (토요일)
6:00~8:00 p.m.

- 개회선언
- 회장 환영사
- 이사장 인사
- 전 회의록 낭독
- 사업보고
- 결산 및 예산보고
- 경과보고: 이사회 보고
- 2014 총회장소 발표 및 인준
- 신임회장 / 수석 부회장 인준
- 신임회장인사
- 기타 안건 및 공지사항
- 폐회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 연례총회가 9월 27일 (금) 12시부터 30일(월) 12시까지 3박4일간 Chicago에서 개최됩니다. Frank Lloyd Wright & Hemingway House Tour 및 Architecture Boat Tour예약 관계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hotel 예약을 하시고 참가비와 함께 신청서를 9월 7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tel 예약

Hilton Chicago/Northbrook
2855 North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6103
Website:www.northbrook.hilton.com Toll free number 1-800-Hiltons
Group Offe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9월20일 마감)
On-line Reservation Code: Ewha
Room Rate: $ 89 + taxes (2인 1실) Standard Double/Double

Transportation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약20분정도 걸리며 택시 요금은 최저30불정도 듭니다.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약 1시간 거리이며 택시 요금은 최저 60불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오헤어 공항으로 도착하시는 동창들은 도착 날짜와 시간, 비행기회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면 자원 봉사를 하실 동창 부군들이 공항에서 여러분을 반가이 맞을 계획입니다.

연락처: B. J. Kim (847) 521-9491, John Kim (847) 521-9512

자르는 선

연례총회 참가신청서

참가자 한글 (maiden name) _____ 영문 _____
졸업연도 _____ 전공과목 _____
주소 _____
City: _____ State/Zip _____
전화 집 _____ Cell _____
e-mail _____
동반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총회참가비 (3박4일) $ 220/person: _____ (관광 포함)
이사비 $100 행사후원비 _____ 장학기금 _____ 발전기금 _____

Payable to EWUAANA
보내실 주소: Hee Young Kim (회계)
3518 Glenlake Dr., Glenview, IL 60026

문의전화: 송복진 (847) 521-9491 회장
구광자 (708) 301-0912, 홍명희 (630) 928-0196 공동준비위원장

* 행사후원비, 장학기금, 발전기금은 뜻하시는 대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ww.eumc.ac.kr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세계 표준입니다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획득으로
환자 안전, 의료 서비스 질 국제 표준 입증
뇌졸중 진료분야 JCI CCPC 인증 획득
유방암 수술 "TOP 5" 진입으로 국내 여성의학 선도
보건복지부 선정 대장암 진료 평가 최우수 병원
위암·대장암 수술 성과 평가 "1등급"

해외 이화 동창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이화 동창 및 동창 가족을 위한 진료비, 건강검진 할인 혜택
- 의료원 방문 시 전담 직원 안내 및 의전 서비스
- 해외 동창을 위한 특별 검진 프로그램 운영
- 숙박 검진 및 의료원 투어 프로그램 제공
- 제휴 호텔 이용 시 객실료 할인
- 이상 소견 시 당일 진료 의뢰 및 빠른 결과 회신

- 여성암병원, 여성암연구소, 레이디병동 운영으로 **여성암 치료 분야 선도**
- **남녀 검진공간을 분리한 여성건진센터** 등 특화된 검진 프로그램
- 당일 진료 의뢰, 1주일 이내 수술 **ONE-STOP 진료 서비스**
- **첨단 장비의 앞선 도입**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와 치료
- **2017년 마곡국제업무지구에 1,000병상 이상 규모의 첨단 시설을 갖춘 제 2부속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세계적 의료기관으로 도약**

진료 예약 상담 및 의료원 방문 관련 문의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대외협력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82-2-2650-5875,5004 **E-mail.** emgift@eumc.ac.kr

이대목동병원 www.eumc.ac.kr/mokdong **이대여성암병원** www.eumc.ac.kr/wch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health.eumc.ac.kr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ENTER

김명미 (의대, '67)

ABC 상담대화 교육원

ABC 사역내용
개인 혹은 구룹으로 교육/상담합니다.

- 대화교육
- 뇌건강 교육
- 부모 교육/ 상담
- 특수 부모교육/ 상담
- 부부교육/ 상담
- 청소년 교육
- 가족 상담
- 정신건강-정신질환 상담 교육
- 행동(습관)장애, 성적부진

I. 대화 교육
- 일반 대화
- 부부 대화
- 부모자녀 대화
- 청소년 대화
- 동료 대화

II. 영어권 대화 교육

III. 대화교육 강사양성과정

I. 뇌-정신건강 교육
- 정신장애 가족상담과 교육
- 뇌 건강과 인간행동, 감정조절, 성품형성
- 주요 정신질환 (Major Mental Illness)의 이해
- 기분장애 Mood Disorder
- 청소년, 아동 행동, 학습장애
- 마음의 상처나 충격에 의한 정신 질환
- 약물 치료의 효과와 후유증
- 자살, 타살
- 정신적 문제와 가정, 사회, 종교, 학교, 자립 토론

II. 영어권 뇌-정신건강 교육

대표-김(여)명미 (의대, '67) 원장- 고명희

2660 W. Woodland Dr. # 111
Anaheim, Ca 92801

714-220-0047

www.abcnice.org

e-mail: abclove77@gmail.com

RYU MEDICAL CORPORATION

여천기 정신과 전문의

Chun Kee Ryu, M.D.

Diplomat of the American Board of Psychiatry & Neurology

Tel.(714) 543-4447
Fax. (714)543-4488
1633 E. 4th Street #138
Santa Ana, CA 92701

SINCE 1985

hong-ik
DESIGN & PRINTING
홍익디자인인쇄

200 N. Westmoreland Ave. #A,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2•5311 ***fax*** 213•382•5312 ***e-mail*** hongikprint@gmail.com

Midwest Pain and Rehabilitation Clinic, Ltd.

Dr. Myung J. Cho MD. DABMA

Medical Director

Chronic Pain Management *Medical Acupuncture*

Physical Therapy

Located in the Independent Medical Arts Building

6709 South Minnesota Ave. Suite 201 Sioux Falls, S. D. 57108

Phone: 605-275-3070 Fax: 605-275-3071 장명주 (의대, '77)

Colorcom AD

미국에서 주요 사망의 원인이되는 심장병은 대체로 아무런 경고없이 어느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에드보켓 루터란 종합병원의 전문의들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최신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하여 심장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환자들이 심장건강 관리에 있어 에드보켓 헬스케어를 가장 신뢰 하고 있습니다.

에드보켓의사는 1.855.ONE.HEART(1.855.663.4327)번으로 전화하여 찾으실수 있으며, (advocatehealth.com/lutheran/heart) 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조은서(한국부 담당자)를 찾아주십시요. (1.847.723.2186)

Advocate Lutheran General Hospital

Inspiring medicine. Changing lives.

Managing Broker/President
GRI, CDPE,
Five Star REO, Short Sale Certified
Equator REO, Short Sale Certified

Joanne Hyun

JHI Realty

847.224.1000

Office.847.256.2220

JoanneHyun@gmail.com

www.joannehyunrealty.com

mb

MB은행
2013년 고객만족도 우수은행 선정

2012년에 이어 올해도 J.D. Power가 선정한 우수 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주 전체은행 만족도 2013년 평균 상승점(10pt)보다 20%를 넘는 우수한 성적입니다.

MB는 안전합니다.

1911년 시카고에서 창립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로 고객님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MB는 편리합니다.

80개 이상의 시카고 지점망과 **편리한 영업시간**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MB는 33년의 동반자입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은행입니다.

MB는 본사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은행이므로 언제든지 최고 경영진과의 상담과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MB는 프로입니다.

최고의 금융서비스 교육을 받은 우수한 전문 직원이 융자 및 구좌관리와 재정계획 까지 책임집니다.

시카고 한인 경제와 금융을 가장 잘 이해하는
MB은행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십시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 인터넷 뱅킹 www.ibankmb.com

mb financial bank ▪ mb means business®
1.888.i bank mb · mbfinancial.com

Member FDIC

Commercial Banking | Business Banking | Personal Banking | Wealth Management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438 Della Dr. Hoffman Estates, IL 60169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CANOGA PARK CA
PERMIT # 488

Ewha Art Exhibit

2013
참가안내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에서는 이화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김홍자 (섬예 58입, '07졸업) 교수님이 시작한 동창들의 아트 슬라이드 전시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2011년 샌디에고 '리바이벌' 아트 전시회에 이어, 3번째 시카고에서 북미주 이화동창들의 미술 전시회를 합니다. 현역 작가들과 취미로 실력을 쌓아온 동창들이 그동안 살아온 이민생활의 삶을 작가의 조형언어로 표현된 작품을 전시하며 더욱 뜻 깊은 동창회 행사를 하려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 김경애 동창(서양화, '68)의 작품 전시와 함께 추모 슬라이드 쇼와 더불어 '김경애 Memorial Art Fund후원회' 활동보고도 있을 계획입니다.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Georgetown" -Awarded from 'Salon D'Automne' Paris, France

Ewha Art Exhibit 2013 - REVIVAL III

- 장소 :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Art Gallery
  9930 S. Capitol Dr., Wheeling, IL 60090
- 기간 : 9월 21일 (토) 부터 ~10월 2일 (수) 까지
- Opening Reception : 9월 21일 (토) 5:30 ~ 7:30pm
- 북미주 동창회원 Reception : 9월 29일 (일) 5:00 pm

故 김경애 동창 추모 슬라이드 쇼 및
김경애 Memorial Art Fund 활동보고
자문 : 김홍자 교수님 komeliakim@aol.com (240) 447-6029

참가신청 마감: 2013년 8월 10일

문의
하양신 (의류직물, '87) hayangsin@gmail.com (773)-627-2869
서동주 (도예, '82) dkang4@gmail.com